'사랑의 등불' 점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사랑의 등불' 점화식이 10일 오후 북구 매곡동 지사 다목적 강당에서 열렸다. 행사를 마친 적십자회원들이 모금함에 성금을 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은 가혹" "性상품화 용납땐 악영향 더 많다"

법원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뜨거운 논란

성매매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오원찬 판사(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가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을 놓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 판사는 지난 9일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1)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10일 시민과 여성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학생 김휘원(여·26·광주)씨는 "자기 몸은 자기 것이니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매매산업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자발적성매매를 용인할 경우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회사원 오정재(33·광주)씨는 "성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합법화해서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불법으로 억압하니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해진 구역에서 허가받고 성매매를 하는 편이 현실적이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등은 보수와 진보 시각에 따라 반응이 다소 엇갈리지만 법원이 밝힌 위헌제청 취지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위헌제청에 관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soultra* * * * * * '는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무분별한 자유권 해석이자 사회 계약으로서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주문"이라고 우려했다.

'korea* * * * * '는 "차라리 싱가포르처럼 성매매 여성은 모두 법적 등록을 해 보건당국이 매달 확인하게 하고 여성이 결혼할 때 남편에게 이를 알리도록 해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어떨까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친구 등 밀며 수다도 떨었는데… 이젠 어디서 모여 세상 얘기할까

목욕탕 없는 동구 서남동 노인들 불편 호소

광주시 동구 서남동에 사는 구모(82) 할아버지는 즐거움이 하나 사라졌다. 1주일에 한 번 친구들도 만나고 세상이야기도 들을 겸 찾던 대중목욕탕이 최근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구도심 주택가라 인구도 줄고 상권도 낙후되면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문을 닫은 점은 이해 못할게 아니지만 서운한 것은 어쩔 수 없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 60%를 차지하는 서남동 일대에 대중목욕탕이 문을 닫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던 목욕탕이 사라지자 주민 불편은 물론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주민 박모(여·73)씨는 "할머니끼리 모여 수다도 하고 재밌었는데 문을 닫아 아쉽다"며 "30분 이상 걸리는 산수동까지 찾아가 목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나 전남도가 읍·면별로 공중목욕탕을 만들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목욕봉사를 하고 목욕티켓을 나눠주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조기춘 동구의원은 "지난 구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목욕탕을 지어주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동구청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서비스 확대 등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국산 미역 국내산 둔갑 유통

어민들 단속 강화 민원 잇따라…감별기 도입 절실

중국산과 섞어 가공한 미역이 버젓이 국내산으로 유통되고 있는데도, 허술한 감별 체계로 단속하기가 불가능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토양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국내산 판별이 가능한 농산물과 달리, 해조류인 미역에 대해서는 현재 장비로는 국내산 여부를 감별하기 힘든데다,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어민들의 민원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도해양경찰은 국내산 미역을 중국산과 섞어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팔고 있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내산 미역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염장미역 재료를 완도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완도해경의 경우 지난해 국산 미역보다 가격이 20% 가량 저렴한 중국산 염장미역 재료를 완도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려한 식품회사 대표를 입건한 바 있다. 해경은 또 어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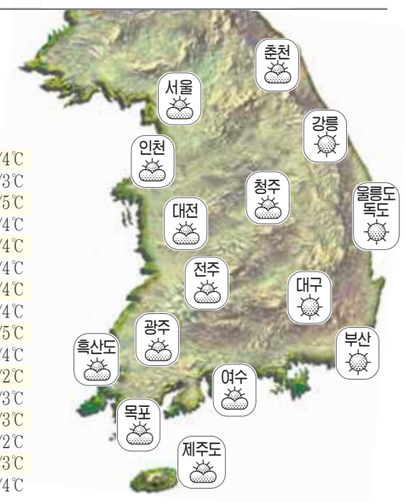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41분 해짐 17시 40분 / 달뜸 06시 44분 달짐 17시 14분

추위 풀려

맑은 가운데 오후들어 구름 많아지겠다.

광 주	구름많음	-7/4℃
목 포	구름많음	-6/3℃
여 수	구름많음	-3/5℃
나 주	구름많음	-8/4℃
완 도	구름많음	-5/4℃
구 례	구름많음	-6/4℃
강 진	구름많음	-7/4℃
해 남	구름많음	-7/4℃
장 흥	구름많음	-8/5℃
순 천	구름많음	-7/4℃
영 광	구름많음	-9/2℃
진 도	구름많음	-5/3℃
전 주	구름많음	-10/3℃
군 산	구름많음	-9/2℃
남 원	구름많음	-13/3℃
흑산도	구름많음	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m
먼바다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01:03 13:58	06:34 19:20
여수	08:57 20:58	02:11 15:0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날 씨						
최저/최고	-2/7	-3/6	-2/6	-3/7	-1/5	-3/2

서울시립대 올해도 100만원대 '반값등록금'

작년 '반값 등록금'을 도입한 서울시립대의 2013학년도 등록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립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등록금 동결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초다.

서울시립대는 2009학년도부터 매년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따라 '반값 등록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한학기 평균 등록금은 작년의 인문사회계열 102만2000원, 공학계열 135만500원, 음악계열 161만500원으로 유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의 한학기 등록금은 평균 335만3000원(국공립대 207만5000원, 사립대 368만7000원)이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